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복음은 무엇이며, 우리 삶과 일상에 ‘다른복음’과 같은 복음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갈1:6-7, 갈5:18)

☞ 갈라디아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적인 요소들을 삭제해 버렸다고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표식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엡2:8-9, 고후11:23-27)

☞ 바울은 십자가의 절대성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없는 자는 참 신자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말은 몸에 새겨진 표식으로 동물에 새겨진 낙인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옛 사람은 십자가로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이라는 것은 죄와 필연적으로 싸워야 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 참된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즉 ‘흔적’은 복음전파를 위해서 당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훈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주변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조차 하나님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더 관심을 끄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쉽게 떠나며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고민해봅시다. (갈1:9-10, 갈 2:20-21)

☞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인생관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치관을 진리라 여기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져야할 신앙의 자세는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의 진리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며, 하나님 외에는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풍조와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잊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타락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복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